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의 타당화

이 선 영

안 현 의[†]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자 Jurkovic과 Thirkield(1999)가 개발한 가족돌봄의무 척도(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의 과거시점을 국내 4년제 대학생 남녀 20대를 대상으로 타당화를 진행하였다. 먼저 원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해서 총 30문항의 예비 척도를 구성하였고, 249명을 대상으로 문항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일부 문항이 삭제되고, 원 척도의 3요인 중 한 요인인 정서적 부모화의 문항이 다른 요인에 포함되어, 새로운 2요인 15문항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독립된 318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원 척도에서 제시된 30문항 3요인 모형과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로 얻은 15문항 2요인(정서적 경험, 돌봄 행동)모형을 경쟁 모형으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정 2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더 우수하여 수정 2요인 구조로 확정되었다. 이후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예측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의의, 제한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 부모화, 대학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 교신저자 : 안현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 02-3277-2643, E-mail: ahn12@ewha.ac.kr

본 연구는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에서 언급되며 하나의 이론적 관점 및 경험적 구인으로 자리 잡은 부모화에 관한 국내 연구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모화 척도의 제작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론적 근거에 의해 개발되어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도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부모화에 관한 연구가 발전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가족 구성원은 가족 체계 내에서 일정한 형태로 상호작용을 하고, 가족 체계와 가족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 각자가 지속적인 역할과 지위를 암묵적으로 맡게 되는데, 한국과 서양은 문화와 가족관계 양상이 다른 만큼, 가족관계 경험을 측정하는 척도가 변안만으로는 한국 실정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개발된 부모화 관련 척도 중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Jurkovic과 Thirkield(1999)이 개발한 가족돌봄의무 척도(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FRS-A) 과거시점을 변안하고 그 심리측정적 속성을 확인하여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다.

‘부모화(Parentification)’란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역할을 하며, 부모와 자녀 간에 역할 역전을 의미하는 것으로(Jurkovic et al., 2004; Kuperminc, Jurkovic & Casey, 2009), 가족체계에서 파생된 병리양상 중 하나로서 가족구성원인 개인과 가족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드러난다(Hooper, 2007). 즉, 부모가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 시켜주고 돌봐주는 것과 반대로, 부모화된 자녀가 부모나 형제자매를 돌보며 부모의 부모 역할을 하거나 부모의 배우자처럼 의사 결정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Oznobishin & Kurman, 2009; Earley & Cushway, 2002), 이 역할들은 내면화 되어 자연스럽게 수행된다

(Chase, 1999; Jurkovic, 1997). 이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안내와 지원을 받길 원하는 자녀의 요구는 관심 받지 못한다(Fullinwider-Bush & Jacobvitz, 1993). 즉, 부모-자녀 간 역할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고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감정적 융합 관계를 이뤄 빈번하게 감정 전이가 발생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지지를 경쟁적으로 얻고자 할 경우에 부모화가 발생한다(Minuchin, 1974). 가족구성원들의 역할과 지위는 암묵으로 승인되어, 개인은 물리적 고충과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자신의 발달단계에서 수행하기 버거운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주도성을 유지하면서 자기 본연의 삶의 목표를 실행하며 살아가기보다 가족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서양과 달리 한국 사회는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부모님을 공경하며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고,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이를 철든 아이로 평가하면서 아동의 성인화를 서두르고 있다(조은영, 정태연, 2005).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아이의 특성이라기보다 어른들에게 요구되는 특성과 더 유사하다(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현대 한국 사회는 자녀 수가 적고 사회적 경쟁이 치열해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이 투자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과도한 욕구가 자녀에게 전이 돼 그 어느 때보다 과도한 교육열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측은지정(惻隱之情)이라는 감정공동체 관계적 특성을 갖고 있어 부모화는 한국 문화에서 더욱 빈번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강창욱, 2019; 김민지, 2015; 조은영, 2004).

부모화는 해외에서 더 활발하게 연구되어져 왔다. Jurkovic(1997)에 따르면, 자녀가 수행하는 부모화의 역할에 대해 감당 가능한 정도,

수행의 범위, 돌봄의 지속 기간에 따라 적응적 부모화, 파괴적 부모화, 비부모화(건강한 비부모화, 유아화)로 나뉜다. 적응적 부모화(Adaptive parentification)는 자녀에게 적합한 책임을 부여하며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에게서 기대하는 정도이다. 어느 정도의 역할 역전은 정상적이고 필연적이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발달의 경험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는 자녀의 조력이 인정받고, 한정된 기간에 한해 역할의 역전이 발생한다. 파괴적 부모화(Destructive parentification)는 자녀가 행동적·정서적으로 자신의 발달 단계에 필요한 행동과 요구를 참으면서 장기간 가족들을 돕는 것을 의미하며, 자녀에게 적절하지 않거나 감당할 수준을 넘는 역할을 떠안거나 역할의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다. 파괴적 부모화는 일중독/맞벌이 가정, 재결합가정, 편부모, 이혼이나 별거 가정, 아동이 많은 가정, 아동학대나 무시하는 가정, 알코올 중독이 있는 가정 등에서 더 자주 나타나며, 어릴 때 상실이나 고생스러운 생활이 지속되는 경우 우울해지고 긴장하며 받는 스트레스가 내면화되면서 나타난다. 반면, 비부모화(Nonparentification)에는 부모화가 되지 않은 건강한 비부모화(Healthy nonparentification)와 지나칠 정도로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 극도로 자녀의 역할 기능이 발달하지 못한 유아화(Infantalization)가 있다.

부모화 유형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도구적 부모화(Instrumental parentification), 정서적 부모화(Emotional parentification)로 나뉜다. 도구적 부모화는 장보기, 요리 하기, 집안 청소, 부모나 형제자매 돌보기 등 가족의 물리적 복지를 위해 하는 역할을 의미하며 가계 수준, 가족 규모, 부모의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고, 정서적 부모화는 갈등을 중재하거나 우울한 부모에게

친구역할을 하는 등 부모와 형제자매의 사회, 정서적 욕구를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정서적 빈곤, 갈등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도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가 뚜렷하게 구분되기보다 두 가지를 모두 수행 하는 경우가 많다(Jurkovic, 1997).

부모화의 영향을 살펴보면, 성공적으로 분리 개별화 단계를 수행하지 못해 분열기제를 계속 사용하게 되어 병리적 의존, 자기 학대적, 자기애적, 강박적 성격장애 방식의 인격을 발달시킨다(Wells & Jones, 1998). 또한 부모화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억압하고, 책임감에 집착하며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과도하게 높으며(조은영, 2004), 스트레스와 긴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Chase, 1999),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을 불안해하며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껴 성인이 된 후 내면에 구멍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한다(신말숙, 심혜원, 2017). 이와 같은 부모화의 부정적인 특징과 취약한 양육 환경 등 부모화를 조장한 환경 요인에 대해 Hooper(2007)는 일종의 외상 경험으로 보았다. 부모화의 가장 심각한 병리적 결과는 아동기의 상실로서, 이로 인한 고통, 무망감, 우울감 등의 부작용은 인생 후반기에도 인식되지 못할 수도 있다(Jurkovic, 1997). 또한, 부모화 경험은 과도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병리적 성격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Fitzgerald et al., 2008; Hooper, 2008; Hooper, 2007; Wells & Jones, 2000; Jones & Wells, 1996). 뿐만 아니라 부모화 경험이 많을수록 불안과 우울 같은 부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Byng-Hall, 2002). 어린 나이에 경험한 부모화는 이후 성인기에도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며 강박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하고(조은영, 2004), 일방적으로 돌보는 관계에서 자신은 돌봄을 받지 못 해 불공평감을 느끼며(Chase, 1999), 이러한 불공평감 경험은 친밀함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Amir Levine, 2009). 또한, 부모와 애착방식을 성인기 이성 관계에서도 반복하며(Baggett, Shaffer & Muetzelfeld, 2015)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초래한다.

반면, 최근 부모화가 긍정적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Hooper, 2008). 자녀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적절하고 공정하다면 자기가치감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해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Jurkovic, 1997). 학교 부적응을 낮추고 심리적 고통을 줄이며 병리적인 문제를 내면화하거나 외재화하는 것을 감소시킨다(McMahon & Luthar, 2007). 또한 가족 내에서 서로 간에 책임감을 갖는 것은 자기 확신과 자존감을 높이며,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어 자기 효능감의 강력한 예언자로 볼 수 있다(Barnett & Parker, 1998). 뿐만 아니라 부모화는 자녀의 개별화를 촉진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시킨다(Walker & Lee, 1998).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화 경험이 공평하고 적절한 경우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정서적 부모화를 많이 경험하고, 불공평을 적게 느낄수록 자기위로 능력과 사회적 지지 추구가 높아졌다(김민재, 2009; 김지성, 2008). 문은미, 최명선(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화가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인 자아통합을 향상시키며,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주체성, 자기 수용성, 목표지향성, 미래 확신성, 친밀성을 높였음을 보고하였다.

앞선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화에 대한 긍정적, 기능적 영향에 대한 이론적, 경험

적 연구를 바탕으로 병리적이거나 특정 문화권 중심적인 의미를 피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부모화(parentification) 또는 부모-자녀 역할역전(Parent-Child Role reversal)과 같은 용어를 가족돌봄의무(Filial Responsibility)라는 용어로 쓰기 시작했다(Jurkovic et al., 2004).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부모화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고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화의 긍정적인 영향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가족 체계가 서양과 다른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부모화의 개념, 요구되는 가치나 행동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 부모화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부모화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부모화 구인 관련 척도는 총 3가지이며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이하 PQ; Jurkovic & Thirkield, 1998; Kelley et al., 2007), Parentification Scale(이하 PS; Mika, Bergner & Baum, 1987), Parentification Inventory(이하 PI; Hooper, 2009)순이다. PQ는 1986년에 Session, Jurkovic이 알콜 중독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병리적 부모화를 평가하기 위해 임상적 접근법인 I-D-C모형을 이용하여 42문항으로 개발하였다. I-D-C모형이란 식별(Identify), 묘사(Describe), 맥락화(Contextualize)로, 가족 내 병리적 부모화 역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 전조, 징후들을 아동의 선생님과 주변인의 평가, 아동이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가족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 등을 통해 밝혀내는 것이다(Jurkovic, 1997). 이 척도는 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감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는 있으나 각 요인이 분리

되지 않았다. 이후 Jurkovic, Thirkield(1998)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아니오로 응답하는 총 30문항 회고적 자기보고식 척도로 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지각된 불공평을 각 요인으로 분리하여 PQ를 개발했다(Hooper & Wallace, 2010; Jurkovic, Thirkield & Morrell, 2001). 이후 PQ에 이론, 연구, 임상작업을 토대로 개발된 문항이 추가되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차원 분석을 위해 과거시점 30문항에 별도의 구성으로 현재시점 30문항을 추가하여 총 60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였고, 척도 명에 부모화의 중립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가족돌봄의무(Filial Responsibility)를 사용하여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이하 FRS-A)를 개발했다고 보고하였다(Jurkovic & Thirkield, 1999; Jurkovic, Thirkield & Morrell, 2001).

FRS-A의 과거시점의 문항과 동일한 30문항 PQ(Jurkovic & Thirkield, 1998)의 개발에 임상적 접근법인 I-D-C 모형이 적용됨을 언급한 자료 외에 척도 개발 관련 연구나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조사한 연구가 없어 Hooper(2010)가 심리측정적 속성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Hooper(201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PQ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의 일부를 삭제하고 원척도와 동일하게 3요인 모형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가족의 돈 관리를 도왔다’, ‘나는 가족을 위해 장을 자주 보았다’처럼 명확히 도구적 부모화 문항이 정서적 부모화 문항으로 분류되어 있어 내용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판단되어, 단순히 수치적으로 확인한 3요인 요인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앞서 언급된 것처럼 도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가 뚜렷하게 구분되기보다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하여 Jurkovic et al.(2005)은 기존의 총합 척도로 사용과 달리 도구적 부모화 요인과 정서적 부모화 요인을 합쳐 부모화 돌봄으로 사용하여, 부모화 돌봄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부모화 불공평이 조절함을 밝혔으며, 국내에서도 강선모(2013)가 부모화 돌봄과 부모화 불공평이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2요인 모형(도구적, 정서적 부모화/부모화 불공평)의 요인 구조도 경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면, FRS-A 현재시점의 경우 FRS-A 과거시점과 동일하게 3개의 하위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동일한 질문에 시제가 과거형 ‘했다’에서 현재형 ‘한다’로 변경되었고, 일부 성인으로서 행동 하거나 느낄 수 있는 문항으로 대체되어 구성되어 있다(예: ‘때로 나는 원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주기도 한다’, ‘원가족 구성원 중에는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 FRS-A 현재시점 척도 개발에 대해 공개된 선행 연구는 Jurkovic, Thirkield & Morrell(2001)에서 탐색적 표본과 확인적 표본 대상으로 신뢰도를 분석해서 Cronbach's α 가 최대가 될 때까지 문항을 삭제하였고 최종 각 요인별 10개 문항으로 확정되었음을 언급한 문구 외에 척도 개발 관련 통계적, 경험적 자료를 보여주는 연구나 이후 심리측정적 속성을 조사한 연구는 국내외에 전무하다. FRS-A 과거시점과 유사한 문항이 있으나 과거시점의 문항이 일부 삭제되고 새로운 문항이 추가 되었으므로 과거시점과 별도의 척도이지만 요인구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국내 실정에는 부모화 관련 행동으로 크게 느끼지 않는 문항도 포함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실정에서 국내의 부모화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표준화된 척도가 없고 외국 척도들을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양적 연구 방법으로 수행된 78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FRS-A를 사용한 논문이 40편(51.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석미정, 2016). 78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요인 명을 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화와 특정 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유의한 상관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다. 크게 정서 변인(40편), 관계 변인(26편), 가족 변인(22편), 자기 변인(22편), 정신병리 변인(10편), 기타 변인(7편)으로 모두 6개로 나눌 수 있으며 가장 많은 논문에서 다루어진 정서 관련 변인에서 총 40편 논문 중 9개 변인(수치심, 우울, 안녕감, 불안 등)이 있었다. 즉, 국내에서는 FRS-A 원척도의 중립적 의도를 따르기보다 병리적 요소로 더 많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창기 부모화 연구는 대부분이 임상현장에서 이루어져 병리적 양상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적응적 기제로도 봄으로서 상반된 결과들로 인해, 최근 연구들은 성인기의 개인의 삶에 부모화 경험의 병리적 혹은 긍정적으로 작용 여부를 살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Barnett & Parker, 1998; East, 2010; East, Weisner & Reyes, 2006). 따라서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더욱 구인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관련하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RS-A 과거시점에 대해 심리측정적 속성을 검증하기 위해 FRS-A 과거시점의 한글 번안판을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여, 이 척도의 국내 부모화 연구 및 가족 상담에서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먼저 타문화 척도를 번안할 때 추천되는 절차인 역번역과정(김아영, 임은영, 2003)을 거쳐 FRS-A의 과거시점 문항들을 한국어로 번안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FRS-A) 과거시점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1) 번안된 문항들의 양호도 검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구조 추출, (2)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구조의 확인, (3)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 및 회귀분석을 통한 수렴 및 변별 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타당화를 실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번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FRS-A 과거시점의 탐색적, 확인적 접근을 통해 요인 및 구성개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 부모화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부모화/가족돌봄의무가 국내에서도 유의미한 구성개념 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자기분화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자기분화의 발달도 부모화 경험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가족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데(장은영, 2012), 부모화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자기분화가 늦어져 자아정체감을 자율적으로 형성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있으며(조은영, 2004), 부모화 경험은 거절과 유기에 대한 일반화된 두려움을 낳게 되고, 이것이 애착불안으로 이어지게 되어 부모화 경험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Katz, Petracca & Rabinowitz, 2009)을 근거로, 부모화/가족돌봄의무 수준이 자기분화와는 부적 상관, 성인애착과 정적 상

관을 예상하며 부모화와 어느 정도 수렴되면 서도 변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화된 자녀의 특성은 어린 시절에 명확하게 드러나기보다 주로 청소년기 후기와 성인 초기 전환기에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드러나며(Teyber, 2006), 특히 심리적 부적응 특성 중 우울, 불안과 관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강원희, 유순화, 윤경미, 2010), 우울과 불안을 예측해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 47명(18.9%), 하 15명(6.0%)이었으며, 과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가 233명(93.6%), 현재 거주 형태에서는 부모와 함께 거주가 172명(69.1%), 하숙/기숙사/자취 55명(22.1%), 모와 함께 15명(6.0%), 부와 함께 4명(1.6%) 순이었다. 부의 학력은 대졸 107명(43.0%), 고졸 89명(35.7%) 순이었고, 모의 학력은 고졸 109명(43.8%), 대졸 103명(41.4%) 순이었다. 부모의 결혼 상태는 초혼 216명(86.7%), 이혼 19명(7.6%), 사별 7명(2.8%) 순이었다.

연구 1

연구1에서는 FRS-A 과거시점을 한국어로 변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하고, 예비 문항을 대상으로 SPSS 23.0을 사용하여 문항 분석 및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 경기도에 있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 수집하였다. 총 250명이 설문 참여 했으며, 이 중 1개의 자료가 이상값으로 판단되어 나머지 249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1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구성을 보면 연령과 성별은 20대의 남성이 109명(43.8%), 여성이 140명(56.2%)이었다. 출생 순서로 첫째가 151명(60.6%), 둘째가 90명(36.1%), 셋째가 8명(3.2%)로 첫째의 비중이 높았다. 성장시절 생활수준은 상 11명(4.4%), 상중 69명(27.7%), 중 107명(43.0%), 중

측정 도구

가족돌봄의무 척도

Jurkovic, Thirkield(1999)가 개발한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FRS-A)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과거, 현재 각각의 시점에서 세 가지 하위 요인(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부모화 불공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과거시점 총 30문항만 사용했다. Likert형 5점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rkovic, Thirkield & Morrell(2001)의 연구에서 하위유형 요인별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0~.87 이었다.

문항 번안

FRS-A 원 척도 사용에 대해 허가를 받기 위해 개발자인 Jurkovic에게 연락을 했으나 은퇴하여 회신을 받을 수 없었고, Jurkovic과 같이 최근까지 가족돌봄의무에 대해 연구한 Kuperminc에게 이메일을 통해 FRS-A에 대해 사용권 관련하여 일임 받음을 확인하고, 척도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이후 조은영

(2004)의 번역을 참고하여 어색한 문항을 수정하여 영어-한국어로 1차 번역하고, 영어권 국가에서 성장 후 한국에서 심리학과 상담 전공 석사과정 학위 졸업생 1인에게 검토 받았다. 이후 한영 전문 번역가가 다시 역번역을 하였고, 이 두 가지 번역, 역번역본을 연구자가 비교함으로써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항들은 같이 1차 검토한 상담심리 석사 졸업생 1인과 함께 수정하였다. 그리고 수정된 번역본을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문항은 없는지, 한국, 미국 각각 10년 이상 장기 거주 경험이 있는 박사 과정생 1인과 함께 보며 재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재차 수정 과정을 거친 번역본과 원척도, 그리고 역번역본을 토대로 미국에서 장기 거주 경험이 있으며 영어에 능숙한 상담 전공 교수 1인의 검토를 거쳐, 보다 명확하면서도 국내에서 친숙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으로 문장을 수정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번역본과 원 문항을 비교하여 원 척도 문항의 표현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비 척도 문항을 확정하였다.

결 과

문항의 양호도 검증

예비 척도의 문항의 양호도를 검증하고자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요인별 문항 간 상관, 문항-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와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문항 평균이 1.0미만이거나 4.0을

초과하는 경우와 문항의 표준편차가 .7이하인 경우, 하위요인별 문항 간 상관이 .2이하이거나 .8이상인 경우(김남걸, 2001), 문항-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이 .4이하(Bayliss et al., 1997)인 경우 문항의 양호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으며,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와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여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가 상승하는 경우 해당 문항이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구적 부모화 6, 7번 문항과 정서적 부모화 2, 5번 문항, 부모화 불공평 5, 7번 문항이 제거되었다. 정서적 부모화 2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역산 문항이었으며,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님은 나에게 형제를 돌보라고 시키지 않으셨다(도구적 부모화 7번)’, ‘나는 가족들로부터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정서적 부모화 2번)’, ‘내가 힘들 때 부모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부모화 불공평 5번)’ 등 한국 문화상 문체로 느끼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24개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번안된 척도에서 우선적으로 제외된 문항의 총 24문항을 바탕으로, 주축요인추출법(Principle axis factoring)과 각 요인에 부하된 문항들을 보다 명료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사각회전법(Direct oblimin)을 사용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한 결과, KMO 표본 적합도(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값이 .91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이 $p < .001$ 으로 나타나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

표 1. 예비척도의 문항별 기술 통계치, 문항-총점 상관, 내적합치도(N=249)

원척도 문항번호	요인별 번호 (R-역채점)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 상관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	내적 합치도
1	Ins1	3.12	1.02	0.57	0.75	.77
3	Ins2	2.82	1.15	0.59	0.74	
6	Ins3	1.94	1.07	0.64	0.74	
8	Ins4	2.51	1.16	0.66	0.73	
13	Ins5	2.34	1.21	0.67	0.73	
16	Ins6R	2.87	1.23	0.39	0.78	
19	Ins7R	2.94	1.16	0.35	0.78	
22	Ins8	2.74	1.13	0.60	0.74	
27	Ins9	2.33	1.14	0.62	0.74	
29	Ins10	1.95	1.07	0.63	0.74	
2	Exp1	3.16	1.09	0.51	0.72	.73
5	Exp2	3.02	1.17	0.52	0.72	
9	Exp3	2.74	1.11	0.65	0.69	
12	Exp4	2.29	1.08	0.73	0.68	
14	Exp5R	3.45	1.01	-0.10	0.80	
17	Exp6	2.66	1.14	0.54	0.71	
18	Exp7	3.10	1.01	0.49	0.72	
24	Exp8	2.21	1.07	0.69	0.68	
26	Exp9	2.21	1.17	0.61	0.70	
30	Exp10	2.55	1.17	0.73	0.67	
4	Unf1	2.73	1.14	0.68	0.83	.85
7	Unf2	2.72	1.19	0.78	0.82	
10	Unf3	2.55	1.13	0.77	0.82	
11	Unf4	2.76	1.03	0.54	0.84	
15	Unf5R	2.44	0.96	0.60	0.84	
20	Unf6	2.43	1.07	0.69	0.83	
21	Unf7R	2.53	0.96	0.59	0.84	
23	Unf8	2.59	1.15	0.48	0.85	
25	Unf9	2.22	1.16	0.78	0.82	
28	Unf10	2.06	0.97	0.55	0.84	

표 2. 예비 척도의 구조계수행렬

	원 척도의 문항 번호 및 문항 내용	요인		공통분 합치도		
		1	2			
25	Unf9	웬지 모르게 나는 부모님을 신뢰하기가 힘들었다.	0.84	0.67	.85	
10	Unf3	나는 가족들에게 자주 실망했다.	0.82	0.62		
7	Unf2	가족들이 내 감정에는 신경을 써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0.74	0.53		
26	Exp9	나는 부모님의 다툼 사이에 낀 것처럼 느꼈다.	0.68	0.47		
12	Exp4	가족들이 자신의 문제에 항상 나를 끌어 들이는 것 같았다.	0.64	0.59		
4	Unf1	부모님은 나에게 잘해 주셨지만, 나는 필요할 때 부모님께 의지하기가 어려웠다.	0.61	0.38		
23	Unf8	부모님은 내가 집안일을 잘 돕지 않는다고 자주 꾸짖으셨다.	0.30	0.15		
8	Ins4	나는 우리 집의 경제적 여건을 위해 가족을 도왔다.		0.60		0.47
2	Exp1	우리 엄마나 아빠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다.		0.58	0.31	
22	Ins8	부모님은 형제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도와주길 기대하셨다.		0.57	0.32	
1	Ins1	나는 가족을 위해 장을 자주 보았다.(예: 옷, 식재료 등)		0.56	0.29	
3	Ins2	나는 형제들의 숙제를 자주 도와주었다.		0.54	0.26	.77
27	Ins9	나는 가족의 돈 관리를 도왔다.(예: 물건 구매에 대한 결정, 청구서 지불 등)		0.53	0.33	
9	Exp3	나는 가족들 사이에서 중재자인 것처럼 느꼈던 적이 많았다.		0.44	0.28	
18	Exp7	가족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그들의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꼈다.		0.43	0.21	
		고유가	4.70	2.30		
		설명변량	27.76	11.34		
		누적변량	27.76	39.10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최초 분석에서 고유치(eigenvalue) 1이상인 요인이 5개로 추출되었다. 그러나 원 척도에서 제안한 요인 내용과 누적

분산 비율, 스크리 검사(scree test), 해석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2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에 보다 적합하면서 신뢰롭고 효율적인 척도를 구성하고자 하여, 여러 기준에 따라 문항들을 제거 또는 추가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문항을 선별했다(Marsh, Martin & Jackson, 2010). 2요인 분석에서 추출된 공통분이 .20이하, 또는 요인 부하량의 차이가 .10을 넘지 않는 교차부하인 문항을 제외하는 방식을 반복하며 최종적으로 하나의 요인에 안정적으로 유의미한 부하량을 가지고, 다른 요인과는 구분되는 문항을 선택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표 2와 같이 15 문항으로 이루어진 2요인 모형으로 확정되었다.

이 모형은 전체 변량의 39.10%를 설명하였다. 요인 1의 설명량은 27.76%로, 원 척도에서는 정서적 부모화, 부모화 불공평으로 각각 분류되었던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원 척도에서는 정서적 부모화로 분류되었던 문항이었으나 내용 상 돌봄 행동을 하면서 또는 관계에서 느껴지는 정서적 경험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한국판에서는 ‘정서적 경험’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의 설명량은 11.34%로, 원 척도에서 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로 각각 분류되었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원 척도 관련 설명에서도 도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가 병행 될 수 있다고 언급되었듯, 구분 없는 돌봄 행동의 의미가 두드러져 한국판에서는 ‘돌봄 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얻은 2요인 구조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1과 독립된 전국의 318명의 자

료를 대상으로 AMOS 23.0을 사용하여 연구 1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항양호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최종 모형을 선정한 후,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와 성인애착 척도와 상관 분석을 통해 수렴,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의무와 우울, 불안 척도와 의 회귀분석을 통해 준거관련 타당도 중 예측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연구 1과 동일하게 20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 수집했다. 총 318명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남성이 107명(33.6%), 여성이 211명(66.4%)이었다. 출생 순서로 첫째가 188명(59.1%), 둘째가 118명(37.1%), 셋째 이상이 12명(3.8%)으로 첫째의 비중이 높았다. 성장 시절 생활수준은 상 23명(7.2%), 상중 84명(26.4%), 중 131명(41.2%), 중하 71명(22.0%), 하 9명(2.8%)이었으며, 과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가 301명(94.7%), 현재 거주 형태에서는 부모와 함께 거주가 214명(67.3%), 하숙/기숙사/자취 79명(24.8%), 모와 함께 18명(5.7%), 부와 함께 5명(1.6%) 순이었다. 부의 학력은 대졸 151명(47.5%), 고졸 105명(33.0%) 순이었고, 모의 학력은 고졸 143명(45.0%), 대졸 112명(35.2%) 순이었다. 부모의 결혼 상태는 초혼 281명(88.3%), 이혼 20명(6.3%), 별거 7명(2.2%) 순이었다.

측정 도구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는 원 척도인 Jurkovic과 Thirkield(1999)이 개발한 FRS-A의 과거시점을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통해 번안하고, 연구 1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구성한 것으로써, 최종 척도는 정서적 경험, 돌봄 행동 2개의 하위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총 15문항이며, Likert형 5점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1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정서적 경험 .85, 돌봄 행동 .77이었다.

성인에착 척도

Brennan, Clark & Shaver(1998)가 개발한 친밀관계경험 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 ECR)를 Fraley, Waller & Brennan(2000)이 ECR-Revised(ECR-R)로 개정하였고, 이를 김성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했다. ECR-R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2개 하위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애착불안은 분리와 유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자신의 정서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을 측정하고, 애착회피는 친밀과 의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밀함에 대한 회피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측정한다.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평정된다. 각 차원의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차원의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내며 두 차원의 총합 점수가 낮으면 안정 애착으로 나타난다. Fraley, Waller & Brennan(200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의 경우 애착불안 .93, 애착회피 .95로 보고되었다.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

자기분화를 측정하기 위해 정혜정, 조은경(2007)이 한국 상황에 맞게 개발한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를 나보영, 정혜정(2008)이 대학생 대상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했다.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는 정서적 반응(9문항)과 자기입장(8문항)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심리내적 차원, 정서적 단절(5문항) 및 타인과의 융합(7문항)요인으로 구성된 대인 관계적 차원과 정서적 융합(9문항)으로 심리내적 차원과 대인관계 차원을 포괄하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의미를 갖는 문항을 역점 처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반응, 정서적 융합,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은 낮은 반면, 자기 입장은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자기분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나보영, 정혜정(2008)의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89, 정서적 반응 .79, 정서적 융합 .79, 타인과의 융합 .76, 자기입장 .74, 정서적 단절 .58로 나타났다.

불안 척도

Beck, Epstein, Brown & Steer(1988)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검사로, 권석만(1992)에 의해 번안된 문항들을 사용하여 육성필, 김중술(1997)이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했다. 지난 한 주 동안 각 문항에서 기술하는 증상으로 인해 불편하게 느낀 정도를 측정하며 총21문항이고,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총점 범위는 0-6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육성필, 김중술(199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94으로 나타났다.

우울 척도

1961년에 Beck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척도로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DSM-IV)이 발표되면서 우울 증상의 진단 기준에 합당하게 2판(Beck Depression Inventory-II)으로 개정하였다. 0~3점의 리커트 척도의 21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며, 총점은 0~62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성형모 등(2008)이 표준화하여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를 사용했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 1과 동일한 문항분석 과정을 거쳤으며, 평균, 표준편차, 하위요인별 문항 간 상관, 문항-하위요인 총점 간 상관이 모두 양호했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전체 .85, 정서적 경험 .86, 돌봄 행동 .80으로 각 문항들이 하위요인들을 측정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chi^2(89)=293.371(p<.001)$, CFI=.873, TLI=.850, SRMR=.0801, RMSEA=.085로 나타났다.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서, RMSEA 수치는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80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로 간주된다. 또한 TLI와 CF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서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김계수, 2007; 홍세희, 2000). 추가적으로 모형의 적합도 개선을 위해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ices)와 이론적 배경을 고려하여 모형을 검토하였다. MI를 이용한 모형수정에는 제약이 있지만, 동일변수 내 측정오차 간 공분산 허용은 가능하므로 수정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동일변수 내의 오차들 간 순차적으로 공분산을 허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경험(요인 1)의 측정변수 Unf2 오차와 Unf3 오차 간, 돌봄 행동(요인 2)의 측정변수 Ins2와 Ins8의 오차 간을 순차적으로 공분산을 허용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오차 공변량을 추가한 수정 2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 본 결과, $\chi^2(87)=241.977(p<.001)$, CFI=.903, TLI=.883, SRMR=.0754, RMSEA=.075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수준으로 개선되어, 수정 2요인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다. 2요인 모형의 모든 표준화 요인계수 값들은 .45~.81 사이의 효과크기를 나타냈고, 하위요인 간 상관이 .47로 요인 간에도 어느

표 3.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 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χ^2	df	CMIN /DF	TLI	CFI	SRMR	RMSEA (90% 신뢰 구간)
3요인 - 30문항	1718.986	402	4.276	.637	.665	.1080	.102(.097-.107)
2요인 - 15문항	293.371	89	3.296	.850	.873	.0801	.085(.074-.096)
수정 2요인 - 15문항	241.977	87	2.781	.883	.903	.0754	.075(.064-.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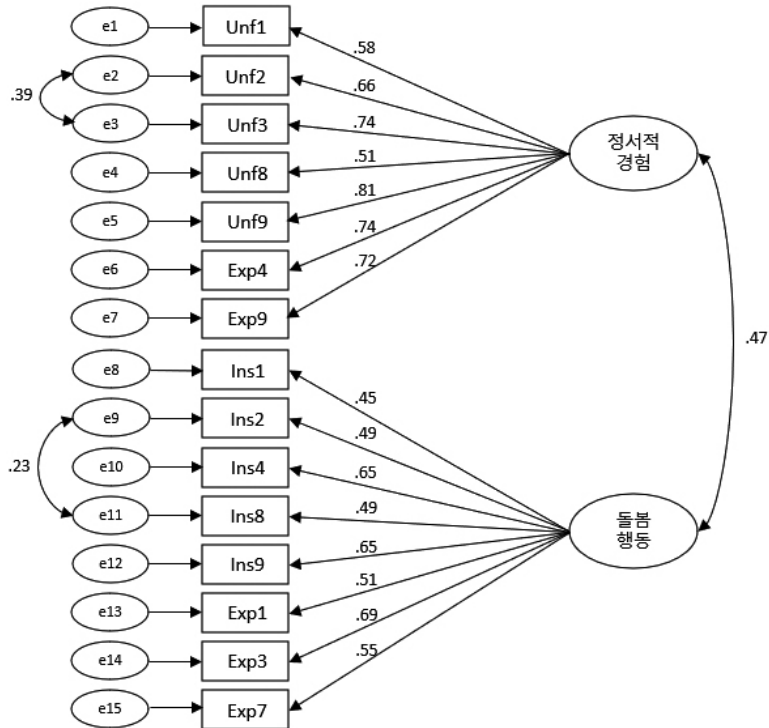


그림 1.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15문항) 2요인 모형(표준화 회귀계수)

정도 변별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국 판 가족돌봄의무 척도에 대한 경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

본 척도의 수렴타당성 및 판별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 분산 추출값(Averaged Variance Extracted: AVE)을 산출하였으며, AVE값을 요인 간 상관계수와 비교하였다. CR값은 .7, AVE값은 .5가 넘으면 수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각 요인에 대한 AVE 값이 두 요인 간 상관계수 제공 값보다 크면 두 구성개념 간에는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우

종필, 2012). 개념 신뢰도(CR)와 평균 분산 추출값(AVE)을 계산한 결과, 정서적 경험은 CR .860, AVE .472, 돌봄 행동은 CR .787, AVE .320으로 나타났다. 두 요인 모두 AVE 기준에는 못 미치나 CR값은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두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공 값이 .220로 AVE값 중 가장 작은 값 .32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본 측정 도구는 요인 간 수렴과 판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의 총점, 하위 척도와 관련 척도들의 상관은 표 4와 같다.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가 부모화/가족돌봄의무를 잘 측정한다면 성인애착 척도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

표 4.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와 한국형 자기분화, 성인애착 척도 간 상관(N=318)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			평균	표준편차
	총점	정서적 경험	돌봄 행동		
자기분화 총점	-.309**	-.351**	-.154**	111.69	18.21
분화_정서적 반응	-.339**	-.389**	-.165**	27.95	6.06
분화_자기 입장	.115*	0.08	.113*	23.47	4.79
분화_타인 융합	-.225**	-.214**	-.155**	20.81	5.08
분화_정서적 단절	-.458**	-.543**	-.205**	16.30	3.66
분화_정서적 융합	-.208**	-.212**	-.128*	23.16	6.28
성인애착 총점	.328**	.422**	.113*	137.36	23.54
애착_불안	.418**	.410**	.275**	67.20	17.34
애착_회피	0.03	.203**	-.151**	70.15	13.85

** p<.01, * p<.05

고,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와 성인애착 척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의 모든 하위요인이 불안정 애착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328$)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애착 불안은 가족돌봄의무의 모든 하위 요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애착 회피의 경우 정서적 경험은 정적 상관이나($r=.203$) 돌봄 행동은 부적 상관($r=-.151$)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 전략으로서 부모에게 돌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접근성에 대한 욕구는 충족될 수 있으나 정서적 지지와 보살핌은 받을 수 없어 불공평한 정서적 경험을 할 수 있을 수 있으며, 애착 불안은 부모화 수준이 높을수록 돌봄 행동을 하지만 애착 회피는 돌봄 행동에 주의를 덜 기울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와는 상관을 살펴 본 결과, 총점과는 $-.309$ 의 부적

상관을 보여 두 척도가 유사한 개념을 평가하면서도 완전히 동일한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의 하위 요인과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의 하위요인이 대체적으로 부적 상관을 보이거나,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의 하위 요인인 자기 입장이 가족돌봄의무와 정적 상관($r=.115$)을 보임으로서 부모화의 경험이 개인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돌봄 행동($r=.113$)과 관련성을 보여 자기가치감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준거관련 타당도

부모화 관련 이론 및 경험적 연구를 참고하여 가족돌봄의무 총점을 예측 변수로 사용하고, 준거 변수로 불안, 우울을 각각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돌봄의무가

불안을 설명하는 정도(R^2)는 약 13.8% [$F(1, 316)=51.613, p<.001$]로 나타났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는 .375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돌봄의무가 우울을 설명하는 정도(R^2)는 약 8.7% [$F(1, 316)=30.250, p<.001$]로 나타났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는 .296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가 우울과 불안을 모두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Jurkovic과 Thirkield(1999)이 개발한 가족돌봄의무 척도(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의 과거시점을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우리나라 대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분석해, 국내 부모화 연구에 적합한 요인 구조 및 문항을 가진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개의 세부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1에서는 Jurkovic과 Thirkield(1999)의 FRS-A 과거시점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총 30문항의 예비 척도에 대한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부모화 불공평 3개의 하위요인,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원 척도와 달리 정서적 부모화 문항이 나누어져 정서적 경험과 돌봄 행동 2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총 15문항의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가 제안되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하고자 연구 1과 독립된 표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이러한 한국판 척도의 모형이 지지되었다. 이후 수렴 및 변별 타당도, 준거관련타당도 중 예측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성인애착 척도,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우울과 불안 척도와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의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1의 문항분석에서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문항이 일부 삭제되었다. 삭제된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가족들로부터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Exp2)’, ‘내가 힘들 때 부모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Unf5)’ 등 한국 문화상 문제로 느끼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문항이 삭제되었다. 한국 문화에서는 나이에 비해 성숙함을 칭찬으로 여기는 점과 자식이 부모에게 힘들 때 정서적·물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또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문제로 느끼지 않는 문화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 문항으로 인한 의미 전달의 어려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거된 도구적 부모화 6, 7번 문항과 정서적 부모화 5번 문항이 역 문항으로서, 문화적 차이로 생소한 문장을 역 문항으로 접하게 되면서 의미 전달력이 더 떨어졌을 수 있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원 척도의 3요인 구조에서 정서적 부모화 문항이 나누어져 ‘정서적 경험’과 ‘돌봄 행동’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2요인 구조가 도출되었다. 최근 연구에서 도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가 부모화 돌봄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지고, 부모화 불공평이 개별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시한 바가 있으나(Thirkield & Morrell, 2001; Kuperminc, Jurkovic & Casey, 2009), 원 척도와 달리 정서적 부모화의 문항이 나누어져 다른 요인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원 척도의 정서적 부모화에 속했던 문항이 분류된 기준을 살펴보면 정서적인 내용을 포함하더라

도 부모화된 자녀가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포함 하는 문항들 ‘가족들이 자신의 문제에 항상 나를 끌어 들이는 것 같았다(Exp4)’, ‘나는 무보님의 다툼 사이에 낀 것처럼 느꼈다(Exp9)’은 정서적 경험 요인으로 분류 되었다. 반면 중재자 역할, 의지 대상 등 정서적 돌봄 행동을 나타내는 ‘우리 엄마나 아빠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다(Exp1)’, ‘나는 가족들 사이에서 중재자인 것처럼 느꼈던 적이 많았다(Exp3)’, ‘가족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그들의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꼈다(Exp7)’ 문항들은 돌봄 행동으로 분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적 부모화’ 측면이 개별적 요인으로 추출 되지 못한 이유를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만큼 정서적 융합의 정도가 높아 정서적으로 돌봄 행동을 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서양 문화에 비해 동양 문화에서는 자녀의 돌봄 행동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그 중 정서적 돌봄 행동은 도구적 돌봄 행동보다 더 눈에 띄지 않아 내가 했음을 알리거나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상담에서도 부모와 정서적으로 융합되어 부모의 욕구, 감정을 우선시 하면서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모화가 갖는 여러 효과가 문화마다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요인일 수 있으므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외국의 척도를 국내에서 타당화 함에 대해, 원 척도와 다른 요인 구조 및 확연히 줄어든 문항 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여러 우려 사항을 가질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다른 표본에게 척

도를 실시했을 때에도 동일한 모형이 지지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검증 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한국판 또한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척도를 사용할 문화에서 안정적이며 설명 가능한 하위요인을 가지고, 실제 연구 조건에서 사용가치가 있는 척도를 제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심리상담에서 부모화는 많은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문제이고, 깊게 고민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연구적으로 진척이 더딘 이유는 부모화 개념 자체가 매우 심오할 뿐만 아니라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부모화의 모든 하위 요인들 및 그들 간의 구조가 온전히 제시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본 연구와 같이 척도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한 요인과 문항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셋째,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에서는 척도의 여러 심리측정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는 유의수준 .01에서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와는 부적 상관, 성인 애착과는 정적 상관을 보여, 그 결과 가족돌봄의무가 자기분화, 애착과 어느 정도 수렴하면서도 변별되는 새로운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준거관련 타당도 중 예측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의 총점 및 하위 요인과 우울, 불안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선행 연구와 일관되게 상관의 방향 및 크기를 보였다. 특히,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의 하위 요인과 가족돌봄의무 척도의 하위요인이 대체적으로 부적 상관을 보이니,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의 하위 요인인 자기 입장이 가족돌봄의무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서 부모화

의 경험이 개인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돌봄 행동과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는 자기가치감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부모화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부모화를 연구할 때 다양한 시각에서 개념 및 접근을 시도하며 문항에 대한 개발 및 다른 심리적 요인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국내에서 부모화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FRS-A 과거시점을 번안하고 타당화하여 국내 부모화를 측정하기 위한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그간 국내의 부모화 관련 연구들은 FRS-A를 단지 번안하여 사용해오거나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수정하여 사용해왔다. 그러나 임상적 평가법에 의해 개발되었음을 나타내는 문구 외에 FRS-A의 개발 관련 경험적 입증 자료가 없어 요인구조 및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Jurkovic과 Thirkield(1999)의 FRS-A의 과거시점을 최대한 의미를 변질 시키지 않으면서도 한국 문화에서 이해가 가능하도록 번안하며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척도 번안과정에 그치지 않고 타당화 과정을 확인하였다. 또, 부모화 관련 국·내외 연구에서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의 비중이 높은 점과 원 척도 개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다는 점에 상응하여, 본 연구에서도 4년제 대학생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선정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한 연구로서 국내 성인의 부모화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돌봄의무, 부모화에 대해 부정적인 면에 많이 치우쳐 있는 국내 연구 흐름을 바라보고, 현실에 발맞추어 한국형 척도 개발 등 후속 연구 또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웠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가장 많은 연구대상이 되었던 20대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성비나 특징들이 대체적으로 유사하나, 남녀의 성비가 연구 1과 2에서 10% 정도 차이가 있었다. 즉, 참여자의 연령, 지역별, 성별 편중이 있고, 온라인 리서치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패널들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척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령별, 지역별, 경제적 수준 등 좀 더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타당화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 검증 등 검증의 폭을 넓혀 갈 필요가 있다. 둘째, 원 척도 구성에서 도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 요인의 상관성이 매우 높았으며, 정서적 부모화가 부모화 불공평과도 구분이 쉽게 되지 않았음을 볼 때,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족돌봄의무 형태가 척도의 원저작자의 국가와 문화적으로 다른 형태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문항을 번안해서 읽었을 때 한국에서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문항이 있었고, 문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서적 돌봄에 포함되는 문항임에도 물질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도구적 돌봄으로 해석 가능성이 있는 문항들이 있었다. 또, 각각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부모-자녀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로 생각되나 각 하위 요인별로 문항들 간

에 상관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이유가 문화적 차이인지, 연구자의 번역 문제인지, 표집의 문제인지는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가족돌봄의무, 부모화 연구에서는 피상적인 형태로 사용하기보다 해당 문항이 우리나라 문화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분석적인 논의 및 지속적인 검증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 성인의 가족돌봄의무를 측정할 수 있는 구성 요인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Jurkovic과 Thirkield(1999)의 FRS-A는 각각 과거시점 30문항과 현재시점 30문항으로 구성되어 별개로 사용 가능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과거시점 30문항에 대해서만 요인구조를 확인하였으므로, 현재시점 척도를 사용할 경우 추가로 요인구조 확인 및 시점을 구분하여 사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Jurkovic과 Thirkield(1999)의 FRS-A 경우 과거와 현재시점 각 30문항 중 약 20여 문항이 같은 내용에 문장의 시제만 다른데, 이는 성인 대상으로 한 척도임에도 과거 시점과 현재 시점간의 차이가 좁을 경우 시점 간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도 영향을 주므로 현재 시점 사용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가족돌봄의무와 관련된 심리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족돌봄의무는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끼쳐 우울, 불안, 자기 효능감, 자아 정체감 등 다양한 변수와 관련이 있지만 아직 국내 심리학 쪽에서는 부모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강해 긍정적인 영향과 관련한 연구가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가족돌봄의무와 긍정적

관련이 있는 변수들과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점들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 척도를 보완하거나 국내 실정에 맞는 부모화 척도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의 국내 효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부모화는 국내 심리상담 및 치료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인 만큼 임상적 평가와 연구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참고문헌

- 강선모 (2013). 부모화와 안녕감의 구조관계분석: 수치심,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6), 3409-3431.
- 강원희, 유순화, 윤경미 (2010).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357-379.
- 강창욱 (2019.4.6). “엄마 같은 우리 딸? 아이는 고통 받는다”. *국민일보*.
-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출판사.
- 김남걸 (2001). Likert 척도 개발을 위한 문항선정 방법의 비교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재 (2009). 부모화가 청소년의 또래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불공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지 (2015. 5. 12.). “[기획연재] 우리학교 상담실- 2.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 *에듀프레스*.
- 김성현 (2004). 친밀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

- 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임은영 (2003). 타문화권 척도 번안과정에서 적용되는 절차들 간의 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1), 89-113.
- 김지성 (2008).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화 경험이 일상적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보영, 정혜정 (200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과 자기 분화 및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155-168.
- 문은미, 최명선 (2008).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청년기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5(2), 103-122.
- 석미정 (2016). 자녀의 부모화(parentification)에 관한 국내연구동향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2), 53-75.
- 성형모, 김정범, 박영남, 배대석, 이선희, 안현의 (2008). 한국어판 백 우울 설문지 2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 14(2), 201-212.
- 신말숙, 심혜원 (2017). 부모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상담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6(1), 61-80.
-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육성필, 김중술 (1997). 한국판 Beck Anxiety Inventory의 임상적 연구: 환자군과 비환자군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1), 185-197.
- 장은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자아분화, 자기주도 학습능력 및 진로탐색행동 간의 구조관계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성격적,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8, 51-76.
- 정혜정, 조은경 (2007).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 개발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19-48.
- 조은영 (2004).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 내 영향력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은영, 정태연 (2004).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 43-62.
- 조은영, 정태연 (2005). 부모화된 자녀의 개인적 및 가족관계적 특성: 자기보고 및 상담을 통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33-853.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Amir Le vine (2009). Parentification and adult psychosocial life distress. *Doctor of social welfare in the wurzweiler school of social work Yeshiva University.*
- Barnett, B., & Parker, G. (1998). The parentified child: Early competence or childhood deprivation?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Review*, 3, 146-155.
- Baggett, E., Shaffer, A., & Muetzelfeld, H. (2015). Father-daughter parentification and young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36(6), 760-783.

- Bayliss, M. S., Gandek, B., Bungay, K. M., Sugano, D., Hsu, M. A., & Ware Jr, J. E. (1997). A questionnaire to assess the generic and disease-specific health outcomes of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C. *Quality of Life Research*, 7(1), 39-55.
- Byng-Hall, J. (2002). Relieving parentified children's burdens in families with insecure attachment patterns. *Family Process*, 41(3), 375-388
- Chase, N. (1999). An overview of theory, research, and societal issues. In N. Chase(Ed.), *Burdened children*(pp. 3-3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Earley, L., & Cushway, D. (2002). The parentified child.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7(2), 163-178.
- East, P. L. (2010). Children's Provision of Family Caregiving Benefit or Burden?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4(1), 55-61.
- East, P. L., Weisner, T. S., & Reyes, B. T. (2006). Youths' caretaking of their adolescent sisters' children: Its costs and benefits for youths' development.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0, 86-95.
- Baggett, E., Shaffer, A., & Muetzelfeld, H. (2015). Father-Daughter Parentification and Young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36(6), 760-783.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Fitzgerald MM, Schneider RA, Salstrom S, Zinzow HM, Jackson J, Fossel RV (2008). Child sexual abuse, early family risk, and childhood parentification: pathways to current psychosocial adjustment. *J Fam Psychol.*, 22(2), 320-324.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 Fullinwider-Bush, N., & Jacobvitz, D. B. (1993).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Generational boundary dissolution and female identity development. *Family Process*, 32(1), 87-101.
- Hooper, L. M. (2007) Expanding the discussion regarding parentification and its varied outcome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9(4), 322-337.
- Hooper, L. M. (2008). Defining and understanding parentification: implications for all counselors. *The Alabama Counseling Association Journal*, 34(1), 34-43.
- Hooper, L. M. (2009). Parentification Inventory. (Available from L. M. Hooper, Department of Educational Studies in Psychology, Research Methodology, and Counseling, The University of Alabama, Tuscaloosa, AL 35487)
- Hooper, L. M. & Wallace, S. (2010). Evaluating the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Psychopathology Correlate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An International*

- Journal*. 32(1), 52-68.
- Jones, R. & Wells, M. (1996). An empirical study of parentification and personalit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4(2), 145-152.
- Jurkovic, G. J., & Session, M. W. (1986). The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Atlanta.
- Jurkovic, G. J., Jesse, E. H., & Goglia, L. R. (1991). Treatment of parental children and their families: Conceptual and technical issu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9(4), 302-314.
- Jurkovic, G. J. (1997).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ew York: Brunner Mazel, Inc.*
- Jurkovic, G. J., & Thirkield, A. (1998).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Available from G. J. Jurkovic,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laza, Atlanta, GA 30303.
- Jurkovic, G. J., & Thirkield, A. (1999).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Available from Gregory J. Jurkovic, Dep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laza, Atlanta, GA 30303 or gjurkovic@gsu.edu)
- Jurkovic, G. J., Thirkie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of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245-257.
- Jurkovic, G. J., Kuperminc, G. P., Perilla, J., Murphy, A. D., Ibanez, G., & Casey, S. (2004). The role of filial responsibility and cultural ecological processes in school and social adjustment of immigrant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5, 81-104.
- Jurkovic, G. J., Kuperminc, G. P., Sarac, T., & Weisshaar, D. (2005). Role of filial responsibility in the post-war adjustment of Bosnia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motional Abuse*, 5(4), 219-235.
- Katz, J., Petracca, M., & Rabinowitz, J. (2009). A retrospective study of daughters' emotional role reversal with parents, attachment anxiety, excessive reassurance-seeking, and depressive symptom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7(3), 185-195.
- Kuperminc, G. P., Jurkovic, G. J., & Casey, S. (2009). Relation of filial responsibility to the personal and social adjustment of latino adolescents from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1), 14-22.
- Kelley, M. L., French, A., Bountress, K., Keefe, H. A., Schroeder, V., Steer, K., Fals-Stewart, W., & Gumienny, L. (2007). Parentification and family responsibility in the family of origin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ddictive Behaviors*, 32(4), 675-685.
- Marsh, H. W., Martin, A. J., & Jackson, S. (2010). Introducing a Short Version of the Physical Self Description Questionnaire: New Strategies, Short-Form Evaluative Criteria, and Applications of Factor Analyse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2(4), 438-482.
- McMahon, T. J., Luthar, S. S. (2007). Defining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 consequences of caretaking burden among children living in urban pover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2), 267-281.
- Mika, P., Bergner, R. M., & Baum, M. C. (1987). The development of a scale for the assessment

- of parentification. *Family Therapy*, 14, 229-235.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Oznobishin O. & Kurman J., (2009). Parent-Child Role Reversa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Immigrant Youth in Isra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3(3), 405-415.
- Teyber, E. (2006). 이혼가정 자녀 어떻게 돌볼 것인가{Helping children cope with divorce}. (성정현, 김희수, 박한샘 역). 서울: 청목출판사 원전은 2001년에 출판.
- Walker, J. P., & Lee, R. E. (1998). Uncovering strengths of children of alcoholic paren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0(4), 521-533.
- Wells, M., & Jones, R. (1998). Relationship among childhood parentification, splitting, and dissociation: Preliminary finding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4), 331-339.
- Wells, M., & Jones, R.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 19-27.
- 논문 투고일 : 2020. 07. 06.
1 차 심사일 : 2020. 07. 06.
게재 확정일 : 2020. 08. 12.

A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Sun Young Lee

Hyun-nie Ah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Past), developed by Jurkovic and Thirkield (1999),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twenties. First, a preliminary scale consisting of 30 items was developed by translating the original scale into Korean and item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on 249 subjects. Based on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tems in the emotional parentification factor were either deleted or included in the other remaining factors, resulting in a two-factor model containing 15 items. In order to confirm thi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on 318 independent subjects. As a result of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two competing models - the three-factor model consisting of 30 items based on the original scale and the two-factor(emotional experience and caring behavior) model consisting of 15 items gained as a result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 the two-factor model showed more suitable and the original scale was revised accordingly. The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predictive validity were all found to be satisfactory. Based on such results,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on follow-up studies a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ification, Korean Version of the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